

2017 한국심리학회 특별심포지엄

한국의 사회는 내일을 문다


: 신뢰와 행복의 관계

2017.02.09 Thu 01:10-17:00 pm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 그랜드볼룸

주최 |  (사)한국심리학회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OSP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후원 |  (재)미래인력연구원 박영사 (주)학지사

초대의 글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를 벗어나, 2017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만큼은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전과도 같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없는지요? 지난 2년간 교수들이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로 뽑은 것은 혼용무도(昏庸無道)와 군주민수(君舟民水)였습니다. 이 글들은 모두 군주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가야하는 바른 길(道)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삶의 지향점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급격한 사회변화 및 가치변화로 인해 한국사회의 미래가 여전히 혼란스럽고 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바른 길을 찾아보고자, (사)한국심리학회와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내일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특별심포지엄을 기획했습니다.




‘한국사회의 내일’에 대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 해답의 키워드를 신뢰로 보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하여, 타인이나 리더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조직과 사회에 대한 신뢰 등과 같이 신뢰는 수많은 이음을 만들어주고, 불확실함을 견어내 줌과 동시에 안전과 안심을 제공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삶의 지향점으로 생각하는 행복에 도달하는 하나의 길을 열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심리학자를 비롯한 사회과학자들이 준비한 연구주제발표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심포지엄을 통해서 내일의 한국사회를 좀 더 먼저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한국심리학회 회장 **김 재휘**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이 진규**

특별심포지엄 일정 및 프로그램

한국사회의 내일을 묻는다: 신뢰와 행복의 관계

- 일시: 2017년 2월 9일(목) 13:10-17:00
-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 그랜드볼룸
- 주최:  (사)한국심리학회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OSS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 후원:  (재)미래인력연구원 박영사 (주)학지사

시간	내용
12:10-13:10	등록
13:10-13:20	인사말 및 축사 김재휘 한국심리학회장 이진규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13:30-14:10	1부 도덕성과 이타성의 뇌인지과학적 이해 발표: 김학진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송현주 교수 (연세대학교)
14:10-14:50	2부 용서하기와 용서 구하기 발표: 조선미 교수 (아주대학교병원) 토론: 송미경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14:50-15:10	휴식
15:10-16:20	3부 토크콘서트 ‘한국사회의 내일을 묻는다: 신뢰와 행복의 관계’ 사회: 이은경 한국심리학회 부회장 패널: 최인철 교수 (서울대학교), 장덕진 교수 (서울대학교)
16:20-17:00	종합토론

특별심포지엄 발표 및 주제

1부 | 도덕성과 이타성의 뇌인지과학적 이해

기능적 뇌영상기법을 중심으로 한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오랫동안 인문사회학적 연구영역 안에 머물던 도덕적 판단과 이타적 행동이라는 주제들까지 포함하면서 그 범위를 빠르게 넓혀 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의사결정을 이끄는 다양한 가치(value)들이 뇌 속에서 계산되고 활용되는 과정에 관한 정교한 뇌과학적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자료들을 토대로 사회적 의사결정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야기시키는 개인차 변인과 상황적 변인들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이 가능해지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의사결정의 뇌과학적 기제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들이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어떠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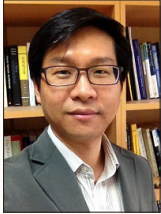
2부 | 용서하기와 용서 구하기

자신을 위해 상대를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상대가 용서를 구할 때와 그렇지 않을 용서하려는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없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용서해야 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두번 상처를 주는 것이다.

3부 | 토크콘서트 '한국사회의 내일을 묻는다: 신뢰와 행복의 관계'

자신에 대한 신뢰, 타인이나 리더에 대한 신뢰, 조직과 사회에 대한 신뢰는 수 많은 이음을 만들어주고, 불확실함을 견어낼 수 있다. 이번 한국심리학회 특별심포지움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신뢰와 안심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삶의 지향점으로 생각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는 토론의 시간을 제공한다.

특별심포지엄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김학진 교수_발표

1부 | 도덕성과 이타성의 뇌인지과학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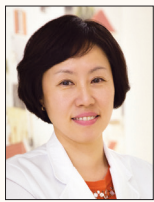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생물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PLoS Biology」, 「PNAS」, 「Cerebral Cortex」,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등 뇌과학 분야의 주요 국제 전문 학술지에 정서와 의사결정, 신경경제학, 사회신경과학 관련 분야의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도덕성, 이타성, 인정욕구의 뇌과학적 기제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송현주 교수_토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발달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심리학회 김재일 소장학자상 및 연세대학교 우수 업적 교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도덕성 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및 Developmental Psychology, Cognition, PLOS ONE 등에 다수의 발달심리 분야 연구를 발표하였다. 최근 한국 영유아의 도덕성 발달, 한국형 우수 영어학습자의 특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부 | 용서하기와 용서 구하기



조선미 교수_발표

고려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임상심리전문가로 심리평가업무와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에 힘쓰고 있다. EBS TV '생방송 60분 부모', '엄마가 달라졌어요'를 비롯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저서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대표 부모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2016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 가족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송미경 교수_토론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임상 및 상담심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및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으로 임상 현장의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격 문제, 우울, 불안 등과 같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와 가족,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다중체계치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 중년 남성의 위기와 분노"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심포지엄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이은경 교수_사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 외 2016년도 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7년 현재 한국심리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가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정책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로, 상담, 학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집단상담의 기초」, 「생활지도와 상담」 등이 있다. 최근 중년남성의 분노와 학교폭력, 청소년 진로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인철 교수_패널

미시간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을 겸하고 있으며,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의 Associate Editor를 수행하고 있다. 문화와 인지, 판단과 의사결정, 행복이 주된 연구 분야이다. 대표적인 저서로 「프레임」이 있으며 그 외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어떻게 살 것인가」 저서 등이 있다. 행복이 사회 속 자본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늘도 교육 현장에서 행복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중을 향한 행복에 대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장덕진 교수_패널

시카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다. 「압축성장의 고고학」 및 「유로존 경제위기의 사회적 기원」 등의 저서를 발간하였으며,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사회모델 비교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외 현재 사회 각종 이슈 및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각종 인터뷰 및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심포지엄 접수안내

- **접수기간** 2017년 1월 16일(월) 10:00 ~ 2017년 1월 20일(금) 16:00 (선착순 300명)
- **접수방법**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특별심포지엄 메뉴 → 사전등록 접수 → 접수유형 선택 → 참가비 결제

• 접수비용	유형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금액		30,000	20,000

• 자격증 수련인정 내역

- 제 1분과 한국임상심리학회 시행.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연수평점 3시간 10분
- 제 2분과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 및 사례심포지엄 0.5회 인정
- 제 4분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시행. 범죄심리사 3시간 학회시간 인정
- 제 5분과 한국발달심리학회 시행. 발달심리사 수련시간 4시간 인정
- 제 6분과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시행. 인지학습심리사 수련시간 2시간 인정
- 제 8분과 한국건강심리학회 시행. 건강심리전문가(수련생 포함) 2시간 인정
- 제 11분과 한국학교심리학회 시행. 학교심리사 사례연구활동 1회 인정
- 제 14분과 한국코칭심리학회 시행. 코칭심리사 4시간 수련인정 (실시간 수련인정 가능)

접수관련 문의 ✉ kpa738@daum.net ☎ 02-567-1085

2017 한국심리학회 Doctoral Colloquium

국내 대학 박사과정 학생들의 우수 논문 발표 및 시상을 통해 연구 공유 및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장을 마련하고자 2017년 1월에 접수 및 심사가 진행 된 Doctoral Colloquium 1차 심사 합격자들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발표 심사를 받는 발표자 및 관련자 외에 회원님들께서도 Doctoral Colloquium에 중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박사과정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일시** 2017년 2월 9일(목) 10:00-12:30
-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 광정환홀
- **참가비** 무료
- **프로그램**

사회자: 김영훈 교수 (연세대학교)

시간	내용
10:00-10:10	개회사: 손영우 학문후속세대교류위원장
10:10-12:30	박사과정생들의 연구논문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에 부과된 인지적 부담과 정서적 부담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 · 선물 행위의 역할이 제품 구성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효과 · 숙련상당자의 좌절경험 및 극복과정의 구조분석 · 시간의 표상방식과 혜택의 소구 유형이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미치는 효과 · 일-가정 양립 촉진적 자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정서수용기반 개입이 학업지연과정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생의 도덕 추론과 또래괴롭힘 방어행동: 다층 모형을 활용한 학급 수준 특성의 조절효과 · 학습 방식과 학습 목표가 학습 후 질문과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 ATTENTIONAL AVOIDANCE OF CONCEALED INFORMATION IN GUILTY INDIVIDUALS · The Effect of Suppressing Guilt and Shame on the Immoral Decision-making Process